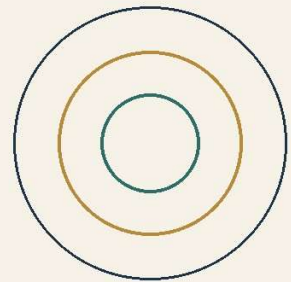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기준이 생기기까지



3천만 원에서, 내 방식이 생기기까지

영어도 투자도 개발도 처음부터 잘한 건 없었다.
군대와 일로 만든 종잣돈, 이상한 투자와 -96%,
첫 1억, 집, 그리고 AI까지.
부딪히며 돈과 삶의 시스템을 만든 기록.

“잘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하면서 내 방식이 생겼다.”

이 책은 투자 성공담이 아니다

좋은 결과만 잘라서 보면 누구나 천재처럼 보인다. 나는 그 사이에 있었던 어설픈 선택과 생각의 변화를 같이 남기고 싶었다.

처음부터 분명히 해두고 싶다. 이 책은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으니 당신도 이렇게 하라”는 책이 아니다. 내 계좌를 복사하거나, 내가 샀던 종목을 따라 사거나, 내가 쓴 대출을 그대로 찾으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결과보다 과정이다. 영어 한마디가 버겁던 사람이 캐나다에서 목표했던 대학 과정까지 갔고, 군 복무 중 모은 돈과 일해서 번 돈을 합쳐 약 3 천만 원의 종잣돈을 만들었다. 그 돈을 들고 시장에 들어가 몇 번 운 좋게 맞힌 뒤 내가 잘하는 줄 알았다. 돈을 내고 남의 판단을 사기도 했고, 한 종목에서는 -96%를 봤다. 그러다 운도 섞인 첫 1 억을 경험했고, 그제야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을 계산이 아니라 감각으로 이해했다.

이후에는 큰 수익보다 오래 살아남는 구조를 고민했고, 집을 사면서는 정책대출과 정보의 가격을 체감했다. 회사에서는 개발자가 아니면서도 AI 를 이용해 원가관리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었다. 돌이켜보면 분야는 달랐지만 내가 한 일은 비슷했다.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고, 틀린 걸 확인하고, 다음번에는 조금 덜 틀리는 방식이었다.

이 책을 읽는 방법

숫자보다 생각의 변화를 봐줬으면 한다. 내 선택을 그대로 따라 하기보다, 내가 판단할 때 사용했던 질문을 당신의 상황과 숫자로 다시 답해보길 바란다. 다 읽고 나서 한 가지 행동만 바뀌어도 충분하다.

CONTENTS

차례

프롤로그 나는 내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01 잘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시작해서 늘었다

02 처음 만든 3 천만 원은 투자 수익이 아니었다

03 세 번 맞히고 내가 주식 천재인 줄 알았다

04 남의 판단을 따른 스캘핑, 내 기대를 믿은 니콜라

05 1 억이 찍힌 날, 돈의 크기가 처음 보였다

06 +958%와 +298%보다 오래 남은 기준

07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것 같지만 통장에서 버틴다

08 5.3 억 집, 3.2 억 대출, 그리고 정보의 가격

09 가계부보다 “내 돈의 지도”가 필요해졌다

10 AI 시대,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늘었다

11 자산은 빨리 늘었지만, 행복은 그렇지 않았다

12 복사하지 말고, 당신의 방식으로 번역하라

워크시트 한 장으로 만드는 나의 돈 지도

00

나는 내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의 결과만 보면 이야기는 너무 깔끔해진다. 실제 시작은 훨씬 불품없었다.

예전의 나는 나 자신을 꽤 자주 루저라고 생각했다. 남들은 뭔가 하나씩 자기 것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나는 늘 애매한 곳에 서 있는 느낌이었다. 지금만 잘라 보면 이야기는 반대처럼 보인다. 투자도 하고, 결혼도 했고, 집도 샀다. 회사에서는 숫자를 다루고, 필요하면 AI 를 붙잡고 프로그램까지 만든다. 그런데 이 결과만 보여주면 내가 가장 말하고 싶은 부분이 사라진다.

나는 원래부터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었다. 잘하지 못할 것 같으면 시작을 미루는 쪽에 가까웠다. “어차피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이상하게 편하다. 안 해도 되는 이유를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렇게 살면 실패도 줄지만, 내가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평생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내 삶이 바뀐 순간을 하나만 고르라면 주식에서 큰 수익이 났을 때도, 집을 샀을 때도 아니다. 영어를 거의 못하던 채 캐나다에 가서 부딪히고, 결국 내가 목표했던 대학 과정까지 도달했을 때에 더 가깝다. 그때 처음 “어? 나도 하면 되는 건가?”라는 느낌을 받았다. 돈보다 먼저 바뀐 것은 내 능력에 대한 평가였다.

돈의 복리보다 먼저 생긴 것은 자기효능감의 복리였다. 작은 성공 하나가 다음 행동을 덜 무섭게 만들었다.

그 뒤 인생이 갑자기 쉬워진 건 아니다. 투자에서는 이상한 선택도 했고, 돈도 잃었다. 영어도 지금 완벽하게 잘하는 건 아니다. 다만 처음의 나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늘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내가 직접 봤다. 그래서 새로운 일이 생기면 예전처럼 “나는 원래 이런 걸 못해”라고 결론 내리기보다 “일단 어디서부터 해볼까?”를 먼저 생각하게 됐다.

이 책은 돈 이야기로 시작하지만 결국 그 태도에 관한 책이다.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고, 운 좋게 맞았을 때는 착각하고, 크게 틀렸을 때는 다시 공부하고, 조금씩 내 기준을 만드는 과정. 나는 그 과정을 돈에서 가장 비싸게 배웠고, 일과 AI 에서는 가장 빠르게 써먹었다.

01

잘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시작해서 늘었다

지금도 영어를 엄청 잘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처음의 나와 비교하면 웃길 정도로 달라졌다.

캐나다에 간 이유부터 거창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대학 반수를 준비하다가 실패했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도망치듯 캐나다로 갔다. “일단 가면 어떻게든 되겠지”에 가까운 가벼운 마음이었다. 새로운 출발이라기 보다, 잘 안 풀린 현실에서 잠시 멀어지고 싶었던 마음이 더 컸다.

그 마음은 첫 어학원 레벨테스트에서 바로 드러났다. 준비도 거의 하지 않고 들어갔고, 선생님과 “Hi, how are you?” 정도를 주고받은 뒤에는 정말 아무 말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다. 결과는 거의 최저반이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도 크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업은 다녔지만 놀기도 많이 했고, 영어를 반드시 늘려야 한다는 절박함도 아직 없었다.

전환점은 대학 준비반에 들어간 뒤였다. 어느 날 선생님이 내게 딱 잘라 말했다. “너 그따구로 하면 내가 책임지고 대학 안 보내.” 말투는 세었지만 이상하게 그 한마디가 오래 남았다. 한국에서 반수에 실패하고 여기까지 도망왔는데, 캐나다에서도 또 대충 하다가 대학조차 못 가면 정말 뒤통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제야 정신이 확 들었다.

그때부터는 행동이 달라졌다. 학원에서 시킨 과제만 하고 끝내지 않았다. 따로 영작을 해가서 “이 표현이 맞냐”고 물었고, 모르는 게 생기면 그냥 넘기지 않고 계속 질문했다. 내가 살던 곳은 반지하에 가까운, 고시원 한 칸을 조금 넓혀놓은 것 같은 작은 방이었다. 그 방 책상에서 모르는 단어와 문장을 붙잡고 있던 밤이 많았다. 어떤 날은 정말 울면서 공부했다. 영어가 어려워서만은 아니었다. 이번에도 도망가면 안 된다는 압박과, 처음으로 끝까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같이 있었다.

시험 합격보다 더 오래 남은 한마디

결국 마지막 시험을 통과했고, 목표했던 대학 과정에 갈 수 있게 됐다. 그때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말했다. “너희도 진짜 대학에 가고 싶으면 애처럼 해야 해.” 그 말을 듣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와, 이거네.” 칭찬을 들어서 기분이 좋았다는 것보다, 내가 실제로 태도를 바꾸고 끝까지 해본 결과가 눈앞에 나타났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다. 그전까지 나는 내가 원래 끈기가 없고, 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편이었다. 그런데 처음으로 그 생각을 뒤집을 증거가 생긴 셈이었다.

지금도 영어를 완벽하게 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처음 “Hi, how are you?” 뒤에 아무 말도 못하던 나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달라졌다. 그 경험 이후에는 남보다 잘하느냐보다, 몇 년 전의 나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늘고 있느냐를 더 보게 됐다. 운동과 생활에도 나름의 루틴이 생겼고, 돈도 비슷하게 보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큰돈을 만드는 방법을 안 게 아니라, 벌고 남기고 쌓는 일을 반복했다. 돌아보면 내 첫 3천만 원도 투자 실력으로 만든 돈이 아니라, “계속하면 쌓이고, 사람도 달라질 수 있다”는 감각을 돈에서 다시 확인한 결과에 가까웠다.

02

처음 만든 3 천만 원은 투자 수익이 아니었다

군 복무 중 모아둔 돈과 이후 일해서 번 돈을 합쳐 만든 첫 종잣돈이었다.

처음 의미 있게 굴릴 수 있었던 돈은 약 3 천만 원이었다. 누군가 한 번에 준 돈도, 투자로 불린 돈도 아니었다. 그때의 나에게는 “나도 돈을 쌓을 수 있구나”를 처음 숫자로 확인한 경험에 가까웠다.

3 천만 원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꽤 큰돈처럼 느껴졌다. 동시에 미래를 생각하면 너무 작은 돈처럼 보였다. 집, 결혼, 앞으로의 생활을 떠올리면 숫자는 금방 작아졌다. 이 모순이 나를 투자로 끌고 갔다. “계속 일해서만 모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다.

절약보다 중요한 건 돈을 어디로 보내는가였다

예전에는 돈을 아낀다는 걸 “싸게 사는 것”에 가깝게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를 보는 기준도 달라졌다. 이 돈을 쓰고 나면 무엇이 남는가. 기분만 남는지, 아니면 능력·시간·건강·자산·기회 중 하나가 남는지를 보기 시작했다.

운동비나 공부에 쓴 돈은 통장에서는 사라지지만 몸이나 능력으로 남을 수 있다. 좋은 업무 도구에 쓴 돈은 시간을 돌려줄 수 있다. 반대로 싸게 샀다는 이유로 필요 없는 걸 사면 할인율은 남아도 자산은 남지 않는다. 이 기준을 이해한 뒤부터 돈을 “쓰느냐, 안 쓰느냐”보다 “어디로 보내느냐”가 더 중요해졌다. 다만 3 천만 원을 손에 쥔 그때의 나는 아직 “어디로 보내느냐”보다 “얼마나 빨리 불리느냐”에 더 마음이 급했다.

03

세 번 맞히고 내가 주식 천재인 줄 알았다

“북한이 도발하면 오른다.” 한때는 이 한 문장이 내 투자 분석의 거의 전부였다.

처음부터 테마주를 샀던 것은 아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도 샀다. 문제는 내가 매일 주가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큰 변화가 없으면 금방 지루해졌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나는 수익보다 자극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다 스펀코라는 종목을 알게 됐다. “북한이 도발하면 방산주가 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적이 나 적정가를 제대로 보지도 않은 채 가진 돈의 절반 가까이를 넣었다. 다음 날 주가는 20% 넘게 급등했다. 손이 떨어져 전부 팔았고, 몇 분 뒤 다시 보니 크게 밀려 있었다.

정상적인 반응 “와, 큰일 날 뻔했다.”

그때의 내 반응 “나 주식 좀 하는 건가?”

첫 번째 행운을 위험 신호가 아니라 판단력의 증거로 받아들였다. 그 뒤 SK 바이오팜 공모주에서도 좋은 결과를 봤다. 한 주라 실제 번 돈은 크지 않았지만 수익률은 화려해 보였다. 그러자 생각이 한 단계 더 나갔다. “상장해서 이렇게 오를 거면 상장 전에 사면 더 벌 수 있지 않을까?”

그 흐름에서 카카오게임즈 비상장주식도 샀다. 기업가치를 깊게 분석한 투자라기보다 카카오라는 이름, 상장 예정, 시장의 관심을 믿은 쪽에 가까웠다. 그런데 이것마저 기억으로 약 50% 수준의 수익이 났다.

세 번의 성공은 세 번의 증명이 아니었다

초보자의 자신감은 수익률보다 더 빨리 올랐다. 문제는 수익률은 다시 내려오는데 자신감은 한동안 그대로였다는 것이다.

스페코, SK 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는 상황도 이유도 전혀 달랐다. 그런데 당시의 나는 결과만 보고 세 사건을 하나로 묶었다. “나는 주식을 잘하나 보다.” 가장 위험했던 건 손실이 아니라 운 좋게 맞힌 몇 번을 실력으로 믿은 순간이었다. 기다리는 건 답답해졌고, 더 빠른 정보만 있으면 더 빨리 부자가 될 것 같았다.

04

남의 판단을 따른 스캘핑, 내 기대를 믿은 니콜라

하나는 남의 판단을 너무 믿은 실수였고, 다른 하나는 내 기대를 너무 오래 믿은 실수였다.

단타를 시작한 뒤 하루 종일 주가를 보는 시간이 늘었다. 매수하면 떨어질까 확인하고, 팔면 더 오를까 다시 확인했다. 에너지는 많이 쓰는데 실제로 남는 돈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그런데 그때 나는 단타를 그만두는 대신 “내가 모르는 좋은 종목을 먼저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약 300 만 원을 내고 유료 매매 서비스를 가입했다. 나는 종목 가이드를 받고, 산 뒤 며칠 정도 두었다가 오르면 파는 방식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시작해보니 실제 방식은 초단타 스캘핑에 가까웠다. 짧은 시간 안에 사고파는 흐름을 계속 따라가야 했고, 내 생활과 성향에는 전혀 맞지 않았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못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환불을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다. 가입비 300 만 원은 그대로 나갔고, 실제 매매 손실까지 합치면 전체 손실은 약 500 만 원 가까이 됐다.

그때 나는 좋은 정보를 사는 줄 알았다. 지금 보면 내가 산 것은 내 판단을 대신해주는 신호에 가까웠다. 문제는 돈을 잃은 것만이 아니었다. 왜 사는지, 왜 파는지 내가 설명할 수 없는 매매를 반복하면 계좌는 움직여도 내 판단력은 거의 자라지 않았다.

니콜라는 스캘핑과 전혀 별개의 투자였다

니콜라는 그 유료 서비스에서 추천받은 종목이 아니었다. 엔비디아를 샀던 것과 비슷한 시기에 내가 직접 고른 투자였다. 당시 나는 “테슬라도 적자기업이던 시기를 지나 크게 성장했으니, 니콜라도 지금은 적자여도 나중에 크게 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다. 처음 매수한 뒤 주가가 내 평단 대비 약 25% 오르기도 했고, 가격이 오르자 내 이야기가 맞다는 확신은 더 강해졌다.

지금 돌아보면 내가 산 것은 산업의 미래라기보다 ‘적자기업도 결국 크게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였다. 문제는 그 가능성을 니콜라라는 회사가 실제로 증명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매출, 현금흐름, 사업 진행, 자금조달 같은 숫자보다 “언젠가 뒤집힐 수 있다”는 기대를 더 오래 붙잡았다.

손실이 커진 뒤에는 세금상 손실을 한 번 확정하려고 매도한 뒤 거의 같은 날 다시 산 적도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이 장면이 내 실수를 가장 잘 보여준다. 계좌 손익은 리셋했는데 투자 논리는 리셋하지 않았다.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는 사실보다, 내가 처음 믿었던 이야기가 아직 살아 있는지를 다시 봐야 했다.

장기투자는 오래 들고 있는 행동이 아니라, 처음 산 이유가 아직 살아 있는지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결국 나는 -96%대에서 니콜라를 정리했다. 이후 회사는 결국 상장폐지까지 갔다. 나는 바닥까지 함께 가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미 거의 전부를 잃은 뒤였다. 이 경험 이후에는 “맞았을 때 얼마나 벌까”만큼 “내가 틀렸다는 증거가 나오면 언제 생각을 바꿀 것인가”를 보게 됐다.

한동안 투자책을 한 달에 열 권 가까이 읽었던 때도 있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바로 실력이 생긴 것은 아니다. 다만 질문은 분명히 달라졌다. “내일 오를까?”에서 “이 회사가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가?”, “내가 기대한 변화가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가?”로.

또 하나 바뀐 것이 있다. 예전에는 손실을 보면 빨리 복구하고 싶었다. 그래서 다음 기회를 더 세게 잡으려 했다. 실패 뒤에 바로 만회하려는 마음이 또 다른 큰 실수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새 종목을 찾기보다 내 판단 과정을 먼저 복기했다. 무엇을 보고 샀고, 무엇을 안 봤고, 틀렸다는 신호가 언제 나왔는지를 적어보는 쪽으로 바뀌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큰 손실은 투자에서 가장 유용한 질문 하나를 남겼다. “내가 이걸 다시 처음 보는 종목이라면 지금도 살까?” 보유 중이라는 사실을 지우고 다시 볼 수 있어야 했다.

돌이켜보면 스캘핑 서비스와 니콜라는 서로 전혀 다른 경험이었다. 스캘핑에서는 남의 판단을 너무 믿었고, 니콜라에서는 내 기대를 너무 오래 믿었다. 하나는 내 생각이 부족했고, 다른 하나는 내 생각을 고집했다. 결국 두 경험이 남긴 결론은 같았다. 판단은 내가 하되, 그 판단이 맞는지는 계속 숫자와 사실로 검증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계좌 손익을 복구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했던 일은, 내 판단 과정을 복구하는 것이었다.

05

1 억이 찍힌 날, 돈의 크기가 처음 보였다

1 억이 생겼다고 회사를 그만둘 수 있었던 건 아니다. 다음 날도 출근했다. 그런데 돈은 전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 실패 뒤에는 한 번에 만회하려 하기보다, 일을 하며 돈을 보태고 투자 기준을 다시 세우는 시간이 이어졌다. 그렇게 여러 시행착오를 지나 자산 합계가 처음 1 억 원을 넘어섰다. 솔직히 말하면 그 1 억을 전부 내 실력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초반에는 운 좋게 맞힌 투자도 있었고, 시장이 도와준 시기도 있었다. 초기 종잣돈을 만든 뒤에도 일하면서 번 돈을 꾸준히 보탬다. 그래서 “내가 투자로 1 억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면 내 이야기의 절반만 말하는 셈이다.

그런데 그 숫자는 분명히 내 생각을 바꿨다. 갑자기 부자가 된 것도 아니었다. 다음 날도 출근해야 했고, 생활이 드라마처럼 달라지지도 않았다. 그런데 1 천만 원의 10%는 100 만 원이고, 1 억의 10%는 1 천만 원이었다. 똑같은 10%가 어느 순간 내가 몇 달 동안 일하고 아껴야 모을 수 있는 돈의 크기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때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을 처음 제대로 느꼈다. 전에는 복리라는 말을 알고 있었고 계산도 할 수 있었다. 1 억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게 지식이 아니라 현실의 크기로 보였다. 내가 일해서 번 돈을 자본으로 바꾸고, 그 자본이 다시 돈을 만들어내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훨씬 선명해졌다.

그리고 1 억을 경험한 뒤부터는 그전까지 따로 놀던 경험들이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했다. 절약은 다음 기회를 남기는 현금을 만드는 습관이었고, 근로소득은 자본을 계속 보태는 힘이었다. 투자공부는 그 자본을 어디에 둘지 판단하는 도구가 됐고, 손실 경험은 비중과 위험을 가르쳐줬다. 현금흐름은 버틸 힘을, 정보 탐색은 비용을 줄이는 법을 알려줬다. 1 억은 단지 숫자가 커진 시점이 아니라 절약·소득·투자·정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이기 시작한 시점에 가까웠다.

1 억은 목표 달성보다 사고방식의 변곡점이었다

“다음에는 뭘 사서 크게 벌까?”



“이 돈을 어떻게 오래 일하게 할까?”

자본이 커지면 수익의 절대금액도 커지지만 손실도 똑같이 커진다. 그때부터 수익률만 보는 투자는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지킬 것이 생겼기 때문이다.

내 돈에 대한 생각은 이렇게 바뀌었다

01	쌓기	군 복무 중 모은 돈과 이후 일해서 번 돈을 합쳐 첫 3천만 원을 만들었다.
02	조급함	3천만 원이 커 보이면서도 미래에는 부족해 보여, 빨리 불리고 싶어졌다.
03	착각	몇 번의 성공을 실력으로 착각했고, 빠른 정보가 답이라고 믿었다.
04	검증	큰 손실 뒤부터 남의 말보다 숫자·실적·사업 진행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05	자본	첫 1억에서 “내가 번 돈도 다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체감했다.
06	시스템	절약·소득·투자·현금흐름·정보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됐다.
07	선택권	돈을 행복 자체보다 시간과 선택지를 넓혀주는 도구로 보기 시작했다.

이 변화는 한 번에 생긴 게 아니다. 성공과 실패, 절약과 투자, 집과 일의 경험이 쌓이면서 내 돈에 대한 생각도 조금씩 바뀌었다.

06

+958%와 +298%보다 오래 남은 기준

같은 시기에 산 두 종목이 있었다. 하나는 거의 10 배, 하나는 거의 0 이 됐다. 결과보다 그 차이를 만든 과정이 더 중요했다.

니콜라를 샀던 것과 비슷한 시기에 엔비디아도 샀다. 두 종목은 같은 시기에 시작했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 엔비디아에서는 최종적으로 약 +958%라는 큰 수익을 경험했다. 숫자만 보면 처음부터 확신을 갖고 크게 베팅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과정은 훨씬 덜 멋있었다.

처음 몇 달은 손실이었다. 이전에 물린 기억이 있었고, 주가가 본전 근처로 돌아왔을 때 초기 물량의 절반 정도를 팔았다. 남은 물량은 계속 들고 갔고, 이후 사업과 실적이 실제로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추가 매수도 했다. 그렇게 4~5 년을 지나 결국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을 매도했다.

예전의 나라면 “처음부터 더 많이 샀으면 훨씬 벌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에 오래 머물렀을 것이다. 지금은 다르게 본다. 처음부터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샀다면 중간 변동을 견디지 못하고 더 일찍 팔았을 가능성이 높다. 못 번 돈은 손실이 아니다. 오래 들고 갈 수 있는 비중을 정한 것도 투자 결정의 일부였다.

팔란티어에서는 확신을 한 번에 사지 않았다

팔란티어는 처음부터 크게 들어간 종목이 아니었다. 감당 가능한 금액으로 시작하고, 실적과 사업 진행이 내가 기대한 방향으로 가는지 확인하면서 조정 때 추가했다. 실제 거래 합계 기준으로 약 +298% 수준의 수익을 경험했다.

재미있는 점은 같은 회사를 20 달러대에서도 사고 훨씬 높은 가격대에서도 샀다는 것이다. 가격만 보면 “왜 더 비쌀 때 샀지?”라는 질문이 생긴다. 내가 본 것은 가격표 하나가 아니라 그 사이 기업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였다. 반대로 확신이 커졌다고 자산 대부분을 한 종목에 넣지도 않았다.

+958%

결과는 화려했지만, 몇 년의 흔들림을 버틸 수 있는 비중이 있었기 때문에 남은 수익이었다.

+298%

처음부터 확신을 크게 산 것이 아니라, 실제 숫자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면서 비중을 키운 경험이었다.

같은 시기에 시작한 두 투자에서 내가 배운 건 수익률보다 ‘버틸 비중’과 ‘검증하는 과정’이었다.

07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것 같지만 통장에서 버틴다

좋은 자산을 사는 것과, 가장 나쁜 순간에도 그 자산을 팔지 않아도 되는 것은 다른 능력이다.

큰 수익을 경험한 뒤 오히려 자산관리는 더 보수적으로 변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좋은 자산을 골라도 현금이 부족하면 가장 팔기 싫은 순간에 팔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현금을 “일 안 하는 돈”처럼 봤다. 시장이 오를 것 같으면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손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현금이 없는 사람은 좋은 가격이 와도 움직일 수 없고, 생활비나 큰 지출이 겹치면 투자 판단과 상관없이 자산을 팔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됐다.

현금흐름은 단순히 매달 남는 돈이 아니다. 팔지 않을 선택권, 기다릴 선택권, 다시 시도할 선택권에 가깝다.

월배당 ETF에 관심을 가진 이유도 여기에서 시작됐다. 월배당은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돈이 아니다. 성장주보다 총수익이 낮을 수도 있고, 세금이나 상품 구조도 함께 봐야 한다. 다만 자산이 실제로 현금을 만들어내는 경험은 “자본이 일한다”는 감각을 매우 구체적으로 보여줬다.

한때는 월배당이 거의 100 만 원씩 들어오도록 만들었다.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경험은 “자본이 일한다”는 감각을 분명하게 보여줬고, 숫자가 커질수록 만족감도 컸다. 하지만 집을 사기로 결정하면서 금융자산의 상당 부분을 매도해야 했다. 지금은 월배당이 한 달 약 30 만 원 수준으로 줄었다.

처음에는 100 만 원에서 30 만 원으로 줄어든 숫자가 아깝기도 했다. 그래도 당시 내 기준은 배당금 자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전체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인지였다. 결혼 이후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고 싶었고, 내가 보던 시장 상황과 대출 조건까지 함께 놓고 봤을 때는 금융자산 일부를 집으로 옮기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집의 호가가 올라 그 판단은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그 결과를 전부 내 실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시장이 도와준 운도 있었다. 내게 더 중요했던 건 월배당 100 만 원이라는 숫자를 반드시

지켜야 할 목표로 보지 않고, 필요할 때 돈의 역할을 바꿀 수 있었다는 점이다. 자산관리는 포트폴리오를 고정해두는 일이 아니라 삶의 변화에 맞춰 자산의 역할을 다시 배치하는 일에 가까웠다.

그래서 나는 종목보다 “역할”을 먼저 본다

성장자산은 장기적으로 자본을 키우는 역할, 현금흐름 자산은 기다릴 힘을 보태는 역할, 현금은 기회와 생활을 지키는 역할, 연금은 아주 긴 시간을 맡는 역할, 외화는 통화를 나누는 역할로 본다. 변동성이 큰 자산은 확신이 낮을수록 금액을 작게 잡는다.

내가 스스로에게 자주 던지는 질문도 단순해졌다. “이 자산이 크게 떨어져도 내 집 계획과 생활이 유지되는가?” 답이 아니라면 수익 가능성보다 비중이 먼저 잘못된 것이다. 높은 수익률을 matching 능력보다 시장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는 구조가 더 중요해진 이유다.

이 장을 내 숫자로 옮기고 싶다면

“나는 월 얼마를 받고 싶고, 그러려면 얼마가 필요하지?”

나도 이 질문을 매번 다시 계산했다. 목표 월배당액을 정하고, 필요한 원금과 남은 기간, 세후 현금흐름을 맞춰보는 일이 생각보다 번거로웠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쓰려고 만든 것이 월배당 포트폴리오 플래너다. 월배당을 막연한 목표가 아니라 자신의 숫자로 바꿔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바로 계산해볼 수 있다.

[월배당 플래너 보기 →](#)

08

5.3 억 집, 3.2 억 대출, 그리고 정보의 가격

사람들은 투자수익률 1%에는 민감하다. 그런데 수억 원짜리 대출의 1%는 의외로 대출 넘길 때가 있다.

집을 사는 과정에서 돈은 더 이상 계좌 속 숫자만이 아니었다. 나는 단순히 “집값이 오를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집을 고른 것은 아니었다. 결혼 이후의 거주 안정성, 매달 감당할 수 있는 비용, 당시 내가 보던 시장 상황,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정책대출 조건을 함께 놓고 봤을 때 집을 사는 쪽이 내 삶 전체에는 더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나는 약 5억 3천만 원에 집을 매수했고, 정책대출을 통해 약 3억 2천만 원을 조달했다. 금리는 약 3.35% 수준이었다. 단순히 원금 3억 2천만 원에 금리만 적용한 초기 월 이자 규모로 보면 약 89만 원 정도다. 당시 조건과 내 상황이 맞았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었다.

여기서 내가 크게 느낀 것은 “정보를 찾는 습관 자체가 돈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정책대출 조건이 내 상황에 맞는지 찾아보지 않고 그냥 익숙한 대출부터 받았다면 같은 한도와 같은 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 몇 시간 찾아본 정보가 몇 년 동안 나가는 비용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집을 사면서 실감했다.

금리 1%p

3억 2천만 원에서는 단순 계산으로 1년에 약 320만 원 차이이다. 작은 숫자처럼 보여도 큰 원금에서는 생활비가 된다.

찾아본 시간

정책, 우대조건, 한도, 세금, 수수료를 확인한 시간은 계좌에 수익률로 표시되지 않지만 몇 년의 비용을 바꿀 수 있다.

집값이 올라도 통장 잔고가 오른 것은 아니었다

내가 산 집은 이후 현재 호가가 거의 7억 원 수준까지 올라왔다. 결과만 놓고 보면 당시 판단은 잘 맞은 셈이다.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다만 이것을 “내가 시장을 정확히 맞혔다”는 이야기로 만들고 싶지는 않다. 당시 나름의 근거를 갖고 선택했지만, 이후 가격이 오른 데에는 분명 운과 시장의 도움이 함께 있었다. 그리고 일부러 “호가”라고 쓴다. 실제 거래가 아니고, 내가 팔기 전까지 확정된 이익도 아니다.

이 경험은 순자산과 현금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보게 했다. 집값이 오르면 순자산은 늘 수 있다. 하지만 통장에 바로 돈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집은 삶의 기반이면서 동시에 필요할 때 10%만 떼어 팔 수 없는 큰 자산이다. 대출도 계속 남아 있다.

자산이 많다는 것과 지금 움직일 수 있는 돈이 많다는 것은 다른 말이다.

집을 산 뒤 오히려 유동성과 현금흐름을 더 신경 쓰게 된 이유다. 주식 계좌가 크더라도 몇 년 안에 쓸 돈과 십 년 이상 투자할 돈을 섞지 않으려고 했다. 다음 큰 결정을 할 때 좋은 자산을 급하게 팔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중요해졌다.

그 뒤로 큰돈이 걸린 일일수록 먼저 검색하고 비교하는 습관이 더 강해졌다. 대출, 세금, 계좌, 지원제도, 계약조건. 다 아는 사람은 될 수 없지만, 모른다는 이유로 첫 번째 선택을 그냥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 캐나다에서 영어 문장 하나를 몰라 검색하던 습관이 몇 년 뒤에는 수억 원짜리 의사결정에서 다시 쓰였다.

나는 정보가 많다고 좋은 의사결정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중요한 건 “지금 내 결정에 영향을 주는 정보가 무엇인지”를 좁히는 일이다. 집을 살 때는 금리 0.1%보다 대출 가능 금액과 상환 구조가 더 중요할 수 있고, 투자에서는 멋진 전망보다 실제 실적 한 줄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결국 정보의 가치는 읽은 양이 아니라 선택이 달라졌는지에서 생긴다. 찾아본 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면 지식일 뿐이지만, 비용을 줄이고 위험을 낮추고 선택지를 늘렸다면 그때부터는 자산관리의 일부가 된다.

09

가계부보다 “내 돈의 지도”가 필요해졌다

이번 달 커피값을 아는 것보다, 내 순자산이 왜 늘거나 줄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졌다.

처음 돈을 관리할 때는 지출을 줄이는 것에 집중했다. 그런데 자산이 주식, ETF, 연금, 외화, 현금, 집과 대출로 나뉘기 시작하자 가계부만으로는 내 상태가 잘 보이지 않았다.

평가금액이 늘었는데 내가 돈을 추가로 넣어서 늘어난 건지, 투자수익 때문에 늘어난 건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었다. 집값이 오르면 순자산은 늘지만 생활에 쓸 현금은 오히려 줄 수 있다. 연금계좌의 돈은 내 돈이지만 당장 집을 살 때 쓸 돈은 아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 목적지, 움직일 수 있는 돈”을 따로 보기 시작했다

나는 돈을 세 층으로 나눠 보는 편이 됐다. 첫째는 집과 대출까지 포함한 순자산 전체. 둘째는 시장에서 움직이는 투자자산. 셋째는 당장 생활과 목표에 사용할 수 있는 유동성이다. 세 숫자는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의사결정에서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한다.

여기에 목표자금을 따로 둔다. 예를 들어 몇 년 뒤 집을 옮길 계획이 있다면 “순자산이 얼마인가”보다 “그때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가 더 중요하다. 목표금액까지 얼마가 부족하고, 남은 기간 동안 매달 얼마나 채워야 하는지 계산하면 막연한 불안이 행동으로 바뀐다.

가계부는 과거를 보여준다. 자산 지도는 현재 위치와 다음 행동을 함께 보여준다.

이 숫자들을 반복해서 정리하다 보니 나는 투자 자체만큼 “보이게 만드는 일”을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다. 월별 자산, 목표자금, 투자현황, 배당, 주택과 대출이 따로 흩어져 있으면 각각은 알아도 전체가 안 보였다.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내 필요 때문에 한 화면에서 볼 수 있는 자산관리 도구를 만들기 시작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예쁜 표가 아니었다. 숫자를 넣었을 때 “그래서 다음에 뭘 해야 하지?”가 보여야 했다. 지금 속도로 목표에 갈 수 있는지, 현금이 너무 적지는 않은지, 집 때문에 금융자산이 줄었다면 다시 어디부터 채울지. 좋은 도구는 내 결정을 대신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대충 넘기던 질문을 눈앞에 꺼내놓는다.

내 돈의 지도를 직접 만들고 싶다면

“순자산은 늘었는데, 왜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부족하지?”

집·현금·투자·연금·대출이 따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총자산만 봐서는 다음 행동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현재 위치,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돈, 목표까지 남은 거리를 한 화면에서 보려고 만든 것이 자산관리 도구다. 내 돈이 어디에 묶여 있고 다음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정리하고 싶은 사람에게 맞게 만들었다.

[자산관리 도구 보기 →](#)

돈을 한눈에 보이게 만드는 경험은 결국 일하는 방식에도 변했다. 복잡한 숫자를 구조로 바꾸는 습관이 생기자, 다음에는 회사의 원가 문제를 같은 방식으로 풀어보고 싶어졌다.

10

AI 시대,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늘었다

개발자가 아닌 내가 회사에서 쓸 원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첫 결과는 빨랐고 그럴듯했고, 당연히 틀린 데가 있었다.

돈을 정리하면서 나는 한 가지 습관이 생겼다. 복잡한 문제를 그냥 머릿속에 두지 않고, 눈에 보이는 구조로 만드는 것이었다. 자산도 그랬고 회사의 원가도 그랬다. 그런데 원가 문제는 엑셀 몇 칸으로 해결하기에는 훨씬 복잡했다. 예전 같았다면 “나는 개발자가 아닌데”에서 멈췄을 것이다. 이번에는 달랐다.

한번은 친구가 내게 물었다. “너 넷플릭스 같은 구독료는 그렇게 아까워하면서 GPT 에는 매달 2 만 9 천 원을 왜 내?” 둘 다 매달 빠져나가는 구독료라는 점은 같았다. 하지만 나는 돈을 쓴 뒤 무엇이 남는지를 더 중요하게 봤다. GPT 로 글을 만들고, 계산을 검토하고, 모르는 일을 시작했고, 결국에는 회사에서 실제로 쓰는 원가관리 프로그램까지 만들었다. 물론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이것도 그냥 낭비다. 내게 중요한 건 구독료 자체가 아니라 그 돈이 시간, 능력, 결과 중 무엇으로 돌아오는가였다.

그래서 나는 AI 구독료를 단순한 소비비용으로만 보지 않는다. 실제로 쓰면 내가 못하던 일을 시작하는데 드는 시간과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도 “나는 개발자가 아닌데”에서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내가 원하는 흐름을 말로 설명하면 일단 움직이는 결과물부터 볼 수 있다. 완벽한 결과는 아니지만, 시작점까지 가는 비용이 놀랄 만큼 낮아졌다.

회사에서 원가를 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 원재료 단가와 배합비, 포장재, 공정시간, 인건비와 경비, 로스율, 판관비가 서로 연결돼 있었다. 틀 작업의 시간이 바뀌면 작업 후 원육가가 달라지고, 포장재 가격이 달라지면 제품 원가도 달라져야 했다. 숫자 하나를 고치면 뒤 계산이 같이 움직여야 했다. 엑셀 몇 칸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었지만 나는 개발자가 아니었다.

대신 나는 현장에서 어떤 숫자가 왜 필요한지는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AI에게 “원가가 자동으로 계산 되게 해줘”에 가까운 부탁을 했다. 그러면 그럴듯한 화면이 나왔고, 실제 숫자를 넣어보면 어딘가 틀렸다. 포장재가 빠지고, 공정별 시간이 엉뚱하게 배부되고, 로스가 어느 단계에서 반영되는지 애매했다. 그때부터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바뀌었다. “이 값이 바뀌면 여기와 여기까지 같이 바뀌어야 한다”처럼 실제 현장의 순서를 하나씩 설명했다.

AI의 재미있는 점은 틀린 계산도 꽤 자신 있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화면이 예쁘다고 계산까지 맞는 건 아니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다”와 “맞게 만들 수 있다” 사이에는 결국 사람의 검증이 필요했다.

수십 번을 고치고 나니 원재료부터 포장재, 공정, 로스, 판관비가 이어지고, 사용자가 필요한 값을 직접 바꾸고 저장하며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수준까지 갔다. 초보자가 열어도 어디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알 수 있도록 사용 가이드도 붙였다. 처음부터 이 완성도를 상상하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하나를 만들면 부족한 게 보였고, 그걸 고치면 다음 문제가 보였다.

AI가 대신해준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첫 시도”의 비용이었다

이 경험 뒤 AI를 보는 눈도 조금 달라졌다. AI가 있다고 누구나 같은 결과물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내가 현장을 모르는데 “원가 프로그램 만들어줘”라고만 하면 그럴듯한 오류를 아주 빠르게 만들 수도 있다. 무엇이 이상한지 알아채려면 결국 내가 문제를 이해해야 하고, 실제 숫자로 대조할 줄 알아야 한다.

생각해보면 캐나다에서 영어를 배울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영어도 틀린 문장을 말해봐야 내가 뭘 모르는지 알았다. 콘텐츠도 올려봐야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가는지 보였다. 프로그램도 실제 숫자를 넣어봐야 잘못된 계산이 드러났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완벽하게 준비한 뒤 시작”보다 “작게 완성한 뒤 수정”을 더 믿게 됐다.

다만 투자에서는 이 태도를 그대로 쓰면 위험하다. 프로그램은 틀리면 고치면 되고, 콘텐츠는 다시 만들면 된다. 하지만 큰돈을 잘못 넣으면 복구에 몇 년이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분야에서는 과감하게 시작하되, 잃을 수 있는 돈이 걸릴수록 실험의 크기를 작게 잡는다. 니콜라가 그 차이를 비싸게 가르쳐줬다.

그래서 나는 AI 시대의 가장 큰 기회가 “전문가가 없어도 된다”는 데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전에는 전문가가 아니면 시작조차 어려웠던 일을, 이제는 시작해서 배우며 전문가와 대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 더 빨리 갈 수 있다는 데 있다고 본다. 모르는 사람에게 기회가 늘어난 만큼, 검증하지 않는 사람에게 는 틀릴 속도도 같이 빨라졌다.

내가 AI와 일하면서 반복한 건 네 가지였다

첫째, 머릿속 문제를 일단 말로 꺼냈다. 둘째, 나온 결과를 실제 숫자와 비교했다. 셋째, 틀린 이유를 더 작은 조건으로 쪼갰다. 넷째, 내가 아니라 처음 쓰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다시 단순화했다. 이 네 단계를 돌 때마다 프로그램도 좋아졌지만, 내 질문도 같이 좋아졌다.

처음에는 “왜 숫자가 달라?”라고 물었다. 나중에는 “이 공정의 h/kg 이 바뀌면 인건비와 경비가 어느 단계에서 다시 배부돼야 하지?”처럼 문게 됐다. AI가 나를 대신해 전문가로 만들어준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었는지를 훨씬 빨리 드러내준 셈이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일을 볼 때 예전보다 겁이 덜 난다. 처음부터 할 줄 알아야 시작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대신 한 가지는 더 조심한다. 그럴듯한 결과와 맞는 결과는 다르다. AI든 투자 정보든, 마지막 확인을 남에게 넘기지 않는 것. 어쩌면 투자에서 가장 비싸게 배운 원칙을 AI 시대에 그대로 쓰고 있는 셈이다.

일단 부딪혀보되, 큰돈부터 부딪히지는 않는다. 삶과 일에서는 작게 실험하고, 금융에서는 위험을 작게 제한한다.

11

자산은 빨리 늘었지만, 행복은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작게 시작하고, 확인하고, 고치는 방식을 돈과 일에 반복한 시간이 어느덧 6년쯤 됐다. 만 24살 무렵 약 3천만 원으로 시작한 자산은, 만 30살인 지금 모두 정리하고 부채를 빼면 순자산 4억 원을 넘는 수준까지 왔다. 그런데 자산이 커지는 속도와 행복이 커지는 속도는 전혀 같지 않았다.

약 6년을 돌아보면 가장 놀라운 것은 숫자보다 속도였다. 정확한 회계상 구간을 잘라 계산한 것은 아니지만, 체감상 첫 1억까지는 약 3년, 그다음 2억까지는 약 2년, 3억까지는 약 1년, 4억을 넘기기까지는 반년 안팎처럼 느껴질 정도로 간격이 짧아졌다.

3천만 → 1억	약 3년
1억 → 2억	약 2년
2억 → 3억	약 1년
3억 → 4억+	약 반년

※ 정확한 투자수익률 비교가 아니라 월급 저축, 투자수익, 주택가격 변화 등을 모두 포함해 내가 체감한 순자산 증가 속도를 표현한 것이다.

이 속도를 복리 하나로 설명하면 과장이다. 원금이 커진 효과도 있었지만, 계속 들어온 근로소득과 시장이 좋았던 시기, 집값 변화, 그리고 앞선 실패에서 배운 것들이 함께 쌓였다. 특히 1억을 경험한 뒤부터는 절약, 투자, 현금흐름, 정보 탐색이 따로 노는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돕는 하나의 시스템처럼 연결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절약은 그냥 덜 쓰는 일, 투자는 더 버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절약이 다음 기회를 남기는 현금을 만들고, 근로소득이 자본을 보태고, 투자공부와 정보 탐색이 그 돈을 지키고 움직이게 한다고 본다. 결국 자산이 커진 과정에는 돈만 쌓인 게 아니라 판단과 습관도 같이 쌓였다.

돈이 늘고 나서 오히려 소비를 더 많이 생각하게 됐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사고 좋은 곳에 가면 사진을 올리고, 남에게 보여주는 데서 만족을 느낀 적도 있었다. 그때는 ‘내가 진짜 좋아서 쓰는 돈인가?’를 지금처럼 묻지 않았다.

그런데 자산이 몇 배로 늘어난 지금도 소비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원래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었지만, 지금은 여행처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에는 기꺼이 돈을 쓰고, 보여주기 위한 소비에는 거의 관심이 없다.

돈이 생기면 그동안 참아온 것에 대한 보상처럼 소비가 커질 수도 있다. 나도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는 ‘살 수 있느냐’보다 ‘이 돈을 쓰는 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과 연결되는가’를 먼저 본다. 절약의 목적도 무조건 안 쓰는 데 있지 않았다. 내가 별로 원하지 않는 것에는 덜 쓰고, 정말 좋아하는 것에는 망설이지 않고 쓰는 것. 그게 지금 내 소비 기준에 가깝다.

그런데 자산의 속도와 행복의 속도는 달랐다

집과 결혼은 오랫동안 내게 큰 목표였다. 둘을 이루고 나면 만족감이 계속될 줄 알았다. 실제로 기뻐지만, 어느 순간 다음에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가 흐려졌다. 큰 목표가 사라지자 오히려 잠깐 방향했다.

돈이 부족하면 선택지가 줄고 불안이 커질 수 있다. 하지만 자산 숫자가 커졌다고 매일 더 즐겁거나 삶의 의미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았다.

그래서 지금은 돈을 행복 그 자체보다 행복을 찾을 여유와 선택권을 넓혀주는 도구로 본다. 싫은 일을 무조건 참지 않을 가능성, 가족에게 필요한 선택을 할 여유, 배우고 싶은 것에 시간과 돈을 써볼 여유. 내게 돈의 현실적인 가치는 그쪽에 가까워졌다.

처음 3천만 원을 모을 때 돈은 불안에 대비하는 방패처럼 보였다. 1억에서는 자본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4억을 넘긴 지금도 돈이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돈이 내 삶의 답을 알려주지는 않았다. 다만 그 답을 찾을 시간과 선택지는 조금 더 많이 만들어줬다.

12

복사하지 말고, 당신의 방식으로 번역하라

내가 가장 원하지 않는 독후감은 “그래서 JEPQ와 엔비디아를 사면 되는구나”다. 이 책의 결론은 그 반대다.

여기까지 읽고 내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따라 하고 싶어졌다면 잠깐 멈춰서면 한다. 스펀코를 사라는 이야기도, 엔비디아를 사라는 이야기도, 월배당 ETF를 사라는 이야기도 아니다. 3억 2천만 원을 대출받아 집을 사라는 뜻은 더더욱 아니다.

내 경험에서 가져갔으면 하는 건 선택의 모양이 아니라, 선택을 바꾸게 만든 질문들이다. 운 좋게 맞힌 걸 실력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좋아하는 미래가 실제 숫자로 확인되고 있는가. 큰돈이 움직이기 전에 놓친 제도나 비용은 없는가. 내가 틀려도 다음 기회가 남는 크기인가. 이 질문들은 종목명보다 오래 쓸 수 있었다.

사람마다 답은 달라야 한다. 소득이 안정적인 직장인과 소득 변동이 큰 자영업자의 현금 비중은 같을 이유가 없다. 몇 년 안에 집을 사야 하는 사람과 15년 뒤 은퇴자금을 만드는 사람도 같은 포트폴리오를 쓸 수 없다. 같은 30% 하락도 누군가는 편하게 버티고 누군가는 잠을 못 잔다.

내 방식의 “모양”을 복사하지 말고, 그 모양을 만들 때 사용한 질문을 가져가라.

내가 지금도 사용하는 일곱 가지 질문

1	나는 왜 돈을 모으는가? 집, 가족, 자유, 사업, 노후. 목표가 없으면 가장 높은 수익률이 목표를 대신한다.
2	이 돈은 언제 써야 하는가? 1년 안에 쓸 돈과 10년 뒤 쓸 돈은 같은 위험을 감수하면 안 된다.
3	이 돈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장, 현금흐름, 안전, 주거, 노후. 역할이 명확하면 시장 소음이 줄어든다.
4	내가 믿는 이야기는 숫자로 확인되고 있는가? 전망과 기업을 구분하고, 기대가 실제 사업·실적으로 바뀌는지 본다.
5	틀렸을 때도 다음 기회가 남는가? 확신이 낮을수록 작게 시작한다. 생존이 먼저다.
6	큰돈이 움직이기 전에 내가 모르는 것은 무엇인가? 대출, 세금, 지원제도, 수수료, 계약조건. 모른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검색을 시작한다.
7	이 계획을 매달 반복할 수 있는가? 좋은 계획은 의지로 버티는 계획보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계획에 가깝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 있다. 오히려 바뀌는 게 자연스럽다. 집이 생기기 전과 후의 나는 다른 사람이고, 결혼 전과 후의 필요한 현금도 다르다. 앞으로 가족 계획이나 소득 구조가 바뀌면 또 달라질 것이다. 시스템은 정답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뀔 때 다시 계산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다.

한 장으로 만드는 나의 돈 지도

정답을 적는 페이지가 아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 칸을 찾는 페이지다. 빈칸이 있다면 그게 다음에 찾아볼 정보다.

내 답을 한 줄로 정리해보기

나는 왜 돈을 모으는가?

내 답 _____

1~3 년 안에 반드시 필요한 큰돈은 무엇인가?

내 답 _____

지금 당장 움직일 수 있는 현금·유동성은 얼마인가?

내 답 _____

내 자산에서 성장·현금흐름·주거·노후의 역할은 각각 무엇인가?

내 답 _____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은 어느 정도인가?

내 답 _____

매달 자동으로 반복할 행동은 무엇인가?

내 답 _____

다음 큰 결정 전, 반드시 확인할 정책·세금·수수료·조건은?

내 답 _____

지금 한 가지 바꾼다면 무엇부터 바꿀 것인가?

내 답 _____

한 번 채우고 끝내지 않아도 된다. 이직, 결혼, 출산, 주택 매수, 큰 수익이나 큰 손실처럼 삶의 조건이 바뀌면 답도 바뀌는 게 정상이다. 시스템은 정답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다시 계산할 수 있게 만드는 장치다.

나는 아직도 완성된 사람이 아니다

지금도 영어를 더 잘하고 싶고, 투자에서는 틀릴 수 있고, 회사 일에는 처음 보는 문제가 계속 생긴다. 완벽해졌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다만 몇 년 전의 나와 비교하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건 확신한다. 달라진 것은 내가 완성됐다는 느낌이 아니라, 모르는 일을 만났을 때의 첫 반응이다.

캐나다에서는 영어를 몰랐고, 주식시장에서는 기업을 몰랐다. 집을 살 때는 정책대출을 몰랐고, 회사에서는 개발을 몰랐다. 예전에는 모른다는 사실이 “나는 못한다”는 결론이었다. 지금은 “어디서부터 확인하지?”라는 질문에 더 가깝다.

그렇다고 무작정 부딪히라는 뜻은 아니다. 새로운 일은 작게 시작해 배우면 되지만, 큰돈이 걸릴수록 먼저 확인하고 틀렸을 때의 비용을 작게 제한해야 한다. 실행력과 무모함은 같은 말이 아니었다.

처음 3천만 원은 군 복무 중 모은 돈과 일해서 번 돈을 합쳐 만들었고, 첫 1억에는 운도 섞여 있었다. 큰 수익과 -96%를 모두 겪었다. 집을 살 때는 정보를 찾아 내게 맞는 대출을 찾았고, 개발자가 아니지만 AI로 실제 업무에 쓰는 원가 프로그램도 만들었다. 서로 다른 경험 같지만 내게는 한 문장으로 이어진다.

**잘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시작하고 확인하고 고치면서
내 방식이 생겼다. 이 책에서 가져갈 것이 있다면 내 답이
아니라 그 과정이었으면 한다.**

당신이 이 책을 덮고 “저 사람처럼 해야겠다”보다 “나는 내 상황에서 어떻게 바꿔볼까?”를 생각한다면 이 책은 제 역할을 다한 셈이다. 돈은 남의 인생을 복사하기 위해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기 위해 모으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안내 | 이 책은 저자의 개인 경험과 생각을 정리한 자료이며 특정 금융상품, 주식, 가상자산, 부동산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는다. 금리·정책·세금·상품 조건은 시점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정 전 최신 조건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